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라코스테·빈폴·폴로 등 트레이디셔널 봄·여름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여름 특수를 잡아라”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 무더위에 광주지역 유통업계도 본격적인 계절 마케팅에 돌입했다.

세일 프로모션을 벌이는가 하면, 여름철 패션상품을 앞 다퉈 내세우며 고객유치에 나서는 등 분주하다.

◇트레이디셔널 시즌오프

광주지역 백화점이 트레이디셔널 시즌 오프에 돌입, 고객맞이에 나섰다.

트레이디셔널 장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패션 스타일을 이어나가고,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폴로’, ‘빈폴’을 비롯 ‘라코스테’, ‘헤지스’, ‘타미힐피거’ 등이 트레이디셔널 장르의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먼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5일 타미힐피거·헤지스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라코스테·빈폴·폴로 등에서 봄·여름 상품을 브랜드 별로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그 외에도 휴고보스 올젠 30%, 헨리 코튼 20% 역시 시즌오프 행사에 돌입, 최대 20~40%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지난 15일부터 ‘트레이디셔널 브랜드 시즌오프’에 돌입 행사는 상품 소진시)까지 최대 30% 할인된

신세계·롯데 백화점 ‘여름 마케팅’ 활발

바캉스 보정 속옷·기능성 화장품 인기

가격에 올해 봄/여름 상품을 판매한다.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24일까지는 ‘트레이디셔널 특집’을 진행한다. ‘폴로’, ‘빈폴’, ‘라코스테’, ‘타미힐피거’, ‘빈폴골프’ 등 총 12개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여름의류 상품 할인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행사장에서 ‘골프·아웃도어 여름상품 특집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24일까지 이어진다. 행사장에서는 블랙야크, 빈폴아웃도어, 스커버리 등의 브랜드 이월상품을 30%~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24일까지 ‘영캐릭터 특별 그룹전’ 행사를 진행한다. 에고이스트, 보보, 지컷, 베네통, 시슬리 등에서 인기 아이템 및 이월 상품을 브랜드별로 30%~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바캉스 시즌을 맞아 1층 매장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패션모자를 선보이고 있

다. 해당 모자 팝업 스토어는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며 가격은 12만원에서 15만 원대로 구성 돼 있다.

통기성이 우수해 여름철 인기 원단으로 꼽히는 인견소재의 잠옷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8층 ‘오가닉맘’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인견 소재의 아동 잠옷을 20% 할인 행사 중이다.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인 여름에 대비하여 운동과 다이어트, 피부관리와 체형보정에 대한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특집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2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 ‘클라란스’는 체지방 분해, 군살 조절 및 셀룰라이트를 관리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체에 집중된 군살을 조절하는 ‘크림 마스벨트’ 크림과 하체의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고 부기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바디 핏 엑스퍼트 카피틴’ 로션을 판매하고 있다.

또 ‘헤라’ 매장에서는 마시는 건강기

능식품 ‘슬리머 디엑스’가 인기가 좋다. 체형보정에 도움을 주거나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 속옷도 인기가 좋다.

‘비비안’ 매장에서는 가슴부터 허리까지 상체의 전체적인 보정을 돕는 ‘바디 웨이퍼’를 15만 5000원~17만 5000원에 판매하고 ‘엘라코닉’은 여름을 맞아 시원한 인견 소재의 연하늘색 폴드 브라를 5만 9,000원에 판매한다.

◇해충 살충제 인기

광주지역 유통업계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모기약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한여름 더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이마트의 모기약 신장률은 지난해 대비 22.6%, 모기장은 8.3% 늘었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 14일부터 ‘모기약 모음전’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초음파형 모기해충퇴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휴대용 모기해충퇴치기는 4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개미약은 판매량이 19% 뛰었고 쥘약은 67%, 바퀴벌레약은 11%, 지네·조파리·나방 등을 퇴치하기 위한 기타 방충용품은 12% 각각 늘었다.

/이나라 기자

월드컵 관람엔 치킨이 ‘최고’

매출 평일 2.3배...피자 판매도 급증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팀 경기기간 치킨과 피자 매출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신한카드가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스웨덴 간 경기가 있었던 18일 오후 6~12시 치킨업종에서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일주일 전보다 133.7% 급증했다.

피자 업종에서는 127.6%,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48.1% 증가했다. 편의점에서 이용금액은 일주일 전에 비해 28.9%, 주점은 16.1% 늘었다.

매장보다는 배달 물량이 많은 치킨, 피자업종과 배달 앱에서 이용금액 증가율이 편의점이나 주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응원은 주로 집에서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월드컵 때와 비교해보면 치킨·피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일시, 평일 여부 등이 비슷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르헨티나전(6월 17일, 목요일) 당시 치킨업종 이용금액은 일주일 전 대비로 108.4%, 피자는 75.1% 늘었다.

이번 스웨덴전 당시 이용금액 증가율을 아르헨티나전과 비교하면 치킨은 25.3%포인트, 피자는 52.5%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피맥(피자+맥주)’이 대세로 떠오른 영향으로 피자의 증가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전 당일 치킨을 가장 많이 결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8시 59분이었다. 치킨 업종에서 이 시간대 이용금액 비중이 하루 24시간 중 23%를 차지했다. 일주일 전의 16%보다 7%포인트 높았다.

배달앱의 시간대별 이용비중은 오후 7시가 23%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이용비중이 9%포인트 높았다.

배달앱은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치킨은 배달을 받는 시점에 결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치킨 주문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 무렵에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찌감치 치킨을 주문해놓고 경기 관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치킨 업종의 이용금액 비중은 오후 9시~9시 59분에 15%로 떨어졌다가 오후 10~10시 59분 16% 올랐다.

치킨 주문이 몰린 탓에 배달이 지연돼 뒤늦게 결제한 경우가 많아 반짝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길거리 응원 이 추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월드컵은 치킨과 함께’라는 것은 변함없이 치킨과 맥주 조합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고공행진 연비향상 용품 인기

오픈마켓 옥션, 판매 최대 2배 증가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자동차 유지비 절약을 위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셀프 관리’에 나서는 이들이 늘었다.

21일 오픈마켓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 달(5월 18일~6월 17일)간 엔진 수명을 연장해 출력을 높여주는 연비 향상 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71%)도 두 자릿수 신장률을 보였다.

자동차의 부드러운 주행을 돕는 변속기 오일(135%)과 엔진 내 부품 간의 마찰을 줄여주는 엔진오일(15%) 판매도 늘었다. 세차도 직접 해결하는 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앞유리를 닦을 때 사용하는 워셔액(161%)과 자동차 흡집을 제거하거나 광택을 내주는 컴파운드(129%) 판매가 급증했다.

스티커·녹 제거제(57%)와 가죽클리너·보호제(23%)도 모두 지난해 동기보

다 두 자릿수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배터리부속품(85%)과 DIY 정비용품(26%), 차량용 공구(25%)도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모바일주유권 판매는 이 기간 144% 치솟았다.

기름값은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픈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주 연속 1당 1천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당 1천700원까지 기록했다.

옥션 관계자는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먼 길을 나서는 원정 주유를 할 만큼 기름값을 아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기름값 외에도 정비, 세차 등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 관련 용품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세계 본점에 ‘대만 야시장’ 선다...28일까지 현지음식 판매

신세계백화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에서 ‘대만 야시장’ 행사를 열어 대만 인기 먹거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난 3월 신세계 강남점에서 선보여 호응을 얻은 ‘유형 닭날개 볶음밥’을 비롯해 대만 여행 때 꼭 먹어야 할 40가지 음식에 선정된 ‘지파이’,

대만의 국민 국수 ‘곱창 국수’ 등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현지 야시장에서 볼 수 있는 조리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피해 백화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달 1~19일 신세계백화점의 식품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신장했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소비자만족센터 (구입 및 A/S 상담)

1544-1154

작지만 강하게! 스테레오로 공기를 케어하다